

새해 새 설계

유신열 (주)광주신세계 대표

“지역업체 전국브랜드화 지원”

“현지법인인 광주신세계의 가장 큰 경쟁력이요. 지역민과 더욱 친밀한 소통으로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브랜드’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주)광주신세계를 이끌게 된 유신열 총괄임원의 각오는 남다르다.

광주신세계가 다른 유통업체와 달리 현지법인이다보니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할일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 총괄임원은 “지난해 유통업계는 불황, 소비침체, 규제강화 등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냈지만 광주신세계는 지역민의 지지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며 “소비침체로 제품성장 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은 더욱 강화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에게 밀착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유 총괄임원은 “단순한 기부나 지원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민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지역 우수 농수축산물과 지역업체를 발굴하는데



농수산물 판로 지원  
사회 공헌사업 강화  
백화점 스토리텔링

그치지 않고 판로를 확대해 전국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14년 KTX 광주~서울 1시간 30분대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광주신세계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 총괄임원은 “현재 광주신세계 회원의 15%가 서울 등지에서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KTX가 개통이 될 경우 역의 유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호남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아우를 수 있는 랜드마크가 광주에 생긴다면 광주의 풍경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총괄임원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유통기업의 할 일”이라며 “광주신세계가 다양한 가치를 만들고 성장해 지역사회에 더 큰 환원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이 너그럽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광주신세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유 총괄임원은 “광주신세계 브랜드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단순한 판매에서 벗어나 고객들에게 감각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토리가 있는 백화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총괄임원은 오는 3월 열리는 광주신세계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식으로 대표이사직 맡게 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나눔기자 mjna@

광주신세계 주차장 부지 추가 확보

이마트 인근 8619㎡ 260억에 매입  
교통난 개선...“백화점 이전 사실무근”

(주)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주변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10일 (주)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인근 부지 8619㎡(2600여평)를 260

억 원에 사들였다. 주말과 공휴일이 광천동 일대 교통체증 현상을 해소하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광주신세계측은 밝혔다. 이번에 사들인 주차장 터에는 차량

250대 동시 주차가 가능해 주말과 휴일 백화점 주변의 교통체증과 고객 주차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신세계의 동시 주차 대수는 백화점 700여 대, 이마트 1400여 대로 주말과 공휴일 고객들의 차량을 소화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다.

광주신세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청과 서구청에서 2~3년 전부터 광천동 일대 차량흐름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주차장 확보 요청을 해왔다”며 “지속적으로 터를 물색하다가 이

마트 인근 부지가 주말 고객을 주차장 활용에 최적지라 판단하고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신세계 측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된 백화점 이전설과 관련해 “현재의 백화점 부지는 지리적으로 핵심상권이며 현 매장면적보다 훨씬 적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부지 이전은 검토할 적도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채소 수급동향 살피러 왔어요”

10일 오후 김수공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왼쪽에서 두번째)와 박중수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왼쪽 첫번째)이 배추 주산지인 해남군 화원면 송호리 배추밭을 방문해 채소수급동향을 살피고 있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제공>

NH농협 설자금 5천억  
지역 中企·중소상인 지원

NH농협은행 광주본부(부행장 이근)는 설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자금 5000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1월10일부터 2월25일까지며, 0.3%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해준다. 또 1조원의 만기연장자금을 마련해 이 기간에 만기가 된 대출에 대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세한 상담은 NH농협은행 각 영업점 창구에서 가능하다.

이근 NH농협은행 광주본부 부행장은 “이번 설 명절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동반성장을 위해 NH농협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동구, 총장로 4가에  
특산물 전시판매장

광주시 동구 총장로 4가에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명품 전시판매장이 들어선다.

광주시 동구는 8일 총장로 4가에 국비와 시·구비 등 13억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 중 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상인교육장 등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구는 이를 위해 최근 총장로 4가의 한 상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특산물 전시판매장 개장으로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총장로 4·5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총장로 상권 확립에 있어, 다양한 지역특산물과 문화상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한파에 정전될라” 증권사 초긴장

금융사고 대비 모의훈련

동장군이 연일 맹위를 떨치면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한국거래소와 증권사들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이중삼중의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심각한 정전사태로 제한송전이 불가할 경우에도 증권업계는 병원, 은행 등에 이어 전력 차단 대상에서는 후순위다. 하지만 정전으로 주식 거래가 차질을 빚게 되면 피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대부분 증권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기 공급이 끊기면 자동으로 가동되

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4중 백업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장치를 통해 건물은 30분, 전산은 1시간 이상 건전지 전원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비상발전기는 항상 14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비상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소는 이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전 대비 훈련에서도 예비전력이 500만kwh에서 100만kwh까지 낮아지는 데 따른 단계적인 위기대응 조치를 마련, 모의 훈련을 벌였다.

증권사들도 홈페이지딩시스템(HTS) 등을 통한 상품 매매가 정전으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비상 발전 시스템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추진

방통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를 폐지하는 등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또 데이터 기반의 요금제를 도입하고 선택형 요금제를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10일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공약집을 면밀히 검토해 방통통신 분야의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가계 통신비 경감방안으로 추진되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위해 조만간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이동통신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MVNO)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으로 요금인하를 유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 시행 중인 휴대전화 자급제 등 단말기 유통경로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보완하고 보급형 스마트폰 생산 및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스마트폰 가

격도 낮춰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망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정책 적극 추진 ▲공공 와이파이 확대 ▲가급급 초고속인터넷 상용화 등 네트워킹 고도화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ICT)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업무보고의 주요 항목에 포함돼, 오는 2014년까지 방통통신 분야의 일자리 3만개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희망, 창의 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국민은행 내달 시청에 출장소

광주시 제2공로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내달 초 광주시청 출장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은행 허정수 호남지역본부장은 10일 광주시청 기자회견을 방문해 “내달 초 시청 1층에 출장소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출장소장을 포함해 직원 5~6명을 상주시켜 업무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청 1층에는 금융기관 중 광주은행만 영업 중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이 개점하면 광주은행과 본격적인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23년 가발명가!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NAVER 주스(D) 대신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주류서비스 성인1인당, 평일방문 고객에게 맥주 or 소주 1병 와인 or 생맥주 1잔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중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